

전남도, 낙지 그물코 규격 22mm→18mm로 완화

어구사용 금지기간 조정, 불법어업 처벌강화

어업관리 규정 개정... 어획량 증대 기대

앞으로 통발 구멍이 너무 커 낙지가 빠져나갔던 황당했던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29일 “최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안어업 관리 기준이 중앙 정부 일괄관리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시·도지사가 고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밝혔다.

먼저 전남 해역에서 빠른 조류를 이용해 멸치 등을 잡는 낭장망(囊長網)의 어구 사용 금지 기간이 조정됐다.

영광과 신안을 제외한 전남 연안 해역은 그동안 5월 16일에서 한 달이 었으나 보름 앞당겨진 5월 1일에서 5월 말까지로 조정됐다.

연안 통발어업에서 낙지 그물코 규격은 현행 22mm에서 18mm로 완화됐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남해안 지역 통발개수를 동해안의 4000개보다 훨씬 적은 2500개로, 낙지 그물코 규격은 장어나 게 등의 통발과 같은 22mm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어업일수가 월평균 2~3회에 불과하고 영성한 그물코 때문에 잡힌 낙지가 통발을 빠져 나가버리는 등 어획량 격감의 원인이 됐다.

해남, 장흥, 강진 등 전남지역 낙지

통발 어민 1400여 가구 중 어획량 감소와 갈수록 치솟는 유튜브 등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어가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어민 불편은 해소하는 대신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은 강화했다.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은 현재 1일 최고 19만원에서 75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또 조업방법상 혼획이 불가피한 업종은 일정 부분(5~15%) 혼획을 허용했다.

연안조망, 새우 조망, 근해형망 등

은 바닥에 그물을 깔면서 조업을 하는 특성상 다른 어종이 잡힐 수밖에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들 업종은 생태계 파괴와 어린 물고기의 남획을 막고자 반드시 포획 대상 어종만 잡도록 규정됐었다.

최갑준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관리규정 개정으로 어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세관 감시정 ‘해신호’ 시험운전

목포세관(세관장 주재화)이 30일 목포항 삼학부두에서 고성능 감시정 ‘해신호’ 취항식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시험운전을 하고 있다. ‘해신호’는 관세청에서 자체 설계해 2012년부터 적용 중인 저비용 고효율형 첨단 고속정으로 최대 속력은 33노트(시속 61km)의 30 t급모로 워터제트(Water-Jet) 추진 방식이 도입됐다.

목포세관(세관장 주재화)이 30일 목포항 삼학부두에서 고성능 감시정 ‘해신호’ 취항식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시험운전을 하고 있다. ‘해신호’는 관세청에서 자체 설계해 2012년부터 적용 중인 저비용 고효율형 첨단 고속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기자 노트

요동치는 지역 정가

목포 지역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저축은행 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돌출 변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박 전 대표의 전남지사 출마설과 맞물려 L, K 도의원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L 도의원은 최종심을 앞

일각에서는 누가 시의원을 가장 많이 잡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또 가뭇에 단비를 만난 듯 정종득 현 시장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지사 출마가 가시화 될 경우 내년 10월 국회의원 보선에 나설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현 시장과 이상열 변호사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설이 퍼다녔으나 이해득실이 맞물리면서 소원해질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여기에 행정가 출신인 배용태 부지사를 따랐던 일부 시청 공직자들의 출세기도 당분간은 주



고구석 목포주재기자

특히 무주공산인 시장선거전에 뛰어들 예비후보자들이 난립하면서 시의원들을 향한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지역정가를 요동치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시장 선거가 과열되면 뭇수목 시의원들의 주가는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역정가는 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가 연대하면 그만큼 선거가 수월해지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박 전 대표와 동향인 박홍률 후보가 공천에서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으나 이마저도 확실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이처럼 목포시장 선거는 박 전 대표의 지사 출마에 따른 변수와 함께 섯법이 복잡해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yousou@kwangju.co.kr

완도, 해조류산업 발전협회 설립키로

완도군이 해조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미래 해조류산업을 선도할 기구 설립에 나섰다.

29일 군에 따르면 김종식 군수를 비롯한 해조류 산업 관계자 21명이 최근 군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칭) 한국 해조류산업 발전 협회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정보 교환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생산어민, 가공·유통업체, 연구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협회를 구성해 해조류 산업 발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단 신

전북과학교 4명 올림피아드 금상

전북과학교고는 29일 “학생 4명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한 청소년기술포럼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풍기문단 선풍기’팀(임승진, 김대희, 신동혁, 장영상 학생)은 ‘스마트홈 대기전력 차단 자동화시스템’ 아이디어로 대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가족이

집을 비울 때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로 대기전력을 차단해 전기와 에너지를 아끼는 자동시스템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로 1등을 차지했다.

이들은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과 연계해 전문가 멘토링을 받고 시제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IC 서연지 지하차도 임시 개통

정읍시는 오는 31일부터 정읍IC 앞 서연지 지하차도를 임시 개통한다.

서연지 지하차도는 연장 179m의 4차로로, 우선 임시개통한 후 보도와 각종 표지판 설치 등 부대시설을 5월 말 완료하고 완전개통할 예정이다. 이로써 그간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따라 철거된 서연지교가교 대신 우회도

로인 전변로를 이용하면서 겪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전변로는 철도 통과지점으로 S자형 급커브를 이루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한국화교실 수료식·전시회

순창군이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운영해 온 한국화교실 수료식이 지난 26일 문화의 집에서 열렸다. 한국화교실은 섬진강 A+A타운벨트 조성사업 중 하나로 섬진강 작가로 유명한 송만규 화백이 한국화 교실 강사로 초빙됐다. 9개월간의 한국화 그리기 과정을

끝낸 22명의 아마추어 작가들은 그동안 배운 솜씨로 작품들을 만들어 수료식과 함께 작은 전시회도 가졌다. 전시회는 2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순창군청 민원실 로비에서 ‘섬진강, 물길 따라 걷다’라는 이름으로 22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 국비 지원

남원시는 29일 “남원의 대표 거리 공연물인 신관사또부임행차 상설공연이 7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우리나라 대표 고전물인 춘향전을 퓨전형 전통공연물로 각색한 신관사또부임행차 상설공연은

남원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획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 왔다.

그동안 남원의 시내권 대표관광지인 춘향테마파크와 광한투어를 연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전북

새만금에 ‘국가별 경제특구’ 조성

유희부지에 생태공원 휴양단지 추진도

정부,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 보완 확정

정부가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을 대폭 보완해 새만금에 국가별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

또 새만금 내 농지를 제외한 유희부지에 생태공원과 휴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등 관광명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새만금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국가별 경제특구 조성과 관광명소화를 골자로 한 새만금 사업의 기본계획 보완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새만금위원회는 정 총리와 이연택 대한체육회 명예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12개 부처 장관과 토지개발·환경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새만금 사업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

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국제사업인 새만금 내부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별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인센티브는 동일하게 제공되되 별도 인센티브는 기업·산업별로 차등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윈스톱 처리를 위한 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새만금은 방대한 용지를 세분화한 뒤 사업성이 확보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

로 참여해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업에 다양한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등의 방향으로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만금 지역 내 광활한 호수(245km)와 노출부지(156.3km), 방조제 등을 활용해 단기간 내에 새만금을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새만금 노출부지를 중심으로 탐방로, 산책길 등이 어우러진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주변 습지에는 새만금 예코탐방센터를 만들어 생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넓은 호수 부지를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 야외공연장을 조성하고 영화촬영장 등 영상문화 제작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마라톤·승마·요트 등 전국 단위의 레포츠 시설과 항공레저 활동 공간을 만들고 국내 유일의 ‘항공레저센터(sky park)’ 유치도 추진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지역명사 초청 특강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지난 27일 김재영 정읍역사문화연구소장을 초청, 정읍경찰서 경찰관, 직원 및 의경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민족운동사의 정읍’이라

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순창 보건의료원 교성리 이전 ‘첫삽’

순창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이 지난 26일 착공에 들어감으로써 오랜 주민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총사업비 89억원을 들여 순창읍 교성리 419-1번지 일원 955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708㎡ 규모로 신축된다. <조감도>

이곳에는 진료부와 응급부, 병동부, 보건사업부, 장례식장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군은 보건복지부 설계심사 통과 후, 지난 10월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를 마쳤으며, 이달 5일 개찰을 통해 17일 최종 낙찰업체와 계약을 완료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 예가람길 ‘문화예술인 거리’ 만든다

창작스튜디오 등 조성

남원시가 공동화 현상으로 빈 집포가 많은 하늘중학교 주변인 예가람길을 문화예술인의 거리로 조성한다.

남원시는 29일 “예가람길을 ‘강처럼 흐르는 길/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해 리모델링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예가람길에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과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업종 입주 시 점포 리모델링 사업비, 월 임대료, 간판 정비를 위한 정비비 등을 지원했다.

3층 건물을 임대해 문화예술인·시민·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연연습실, 맨스연습실 등을 갖춘 창작스튜디오를 만들고 있다.

방문객에게 정보제공, 컴퓨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문자센터도 단장 중이다.

예가람길에 아와 휴게공원조성, 포토존, 공공조형물을 제작 설치해 거리의 미적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하수도, 전기 통신 지중화 사업이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거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는 내년도에 토요일 상시거리공연, 예술시장, 다문화가정 이색축제개발, 혼례행차 이벤트, 주민·예술인·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지리산소극장을 이용한 여성극단, 청소년밴드육성 등을 기획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